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종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사랑을 원한다 (보4:14)

교황“신이 허락하는 한 직무지속”

고령으로 접어들었다 최근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지면서 자진 퇴위설이 무성해진 프란치스코 교황(85)이 퇴위 가능성을 일축했다.

지난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0일 교황청에서 브라질 주교들을 접견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하느님이 허락하는 한 직무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브라질 포르투 벨류의 호케 팔로시 대주교는 이 같이 전하면서 교황이 이렇게 말하며 “그것이 전부일 뿐”이라고 덧붙였다고 밝혔다.

브라질 주교단의 일원으로 교황을 알현한 브라질 호라이마 교구의 니콜레토 몬시뇰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날 보여준 '강인함'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하며 교황의 건강 이상설에 선을 그었다.

고령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오른쪽 무릎 통증을 겪다 지난5월 무릎 연골을 지지하는 보강물 삽입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썩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공식 행사에 휠체어를 타고 등장하고, 7월로 예정된 남수단과 콩고민주공화국 순방을 연기하자 교황이 전임자인 베네딕토 16세 명예교황처럼 자진 퇴위를 결심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했다.

교황이 즉위 5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 '생존 중 퇴위'라는 전례를 남긴 퀴레스티노 5세(1215~1296) 전 교황의 유해가 안치된 이탈리아 중부 도시 라벨라를 8월에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이런 관측에 더 힘이 실렸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과거 베네딕토 16세의 자진 퇴위에 대해 “후임 교황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연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의 측근인 오스카 로드리게스 마라디아가 온두라스 추기경은 앞서 '가짜 뉴스', '짜귀려 드라마'라는 용어를 쓰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진퇴위설은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랑을 원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사랑을 받음으로써 자라고 더욱 더 풍성해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랑이란 가슴 속에 깊이 담가두고 보존한다고 보존이 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쓰면 쓸수록 나오는 것입니다.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머리를 쓰지 않으면 머리가 나빠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을 아끼는 사람이 사랑의 측면에서 발전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이란 잃었던 시력을 찾는 것 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보이지 않는 것은 그것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요, 그 무관심은 사랑이 없기 때문일진대, 사랑은 우리의 감긴 눈을 뜨게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그리고 자연에 대하여 좀 더 열린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진정 내가 감사하고 높이는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형용사가 아닌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받기만 하려는 세상의 헛된 사랑과 받는 사랑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받는 사랑에는 항상 갈증이 따르지만 주는 사랑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오늘도 받는 사랑에만 집착하는 이유는, 이기심으로 인한 온갖 상처로 마음이 비뚤어진 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주는



사랑은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을 주면 상대방이 변합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큰 기쁨이 됩니다. 사랑으로 총만하시고 그 총만하신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과 모든 곳에 나아가서 삶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새는 가는 다리마저 부러졌을 때 날기를 배운다고 합니다. 새가 처량한 가는 다리에서 더 처량한 부러진 다리가 되었을 때야 새는 도리어 저 바위를 피할 수 있었으며, 저 산을 뛰어넘을 수 있고 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는 다리만 보고 절망하며 살지 마시고 또한 그다리마저 부러졌을지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더 큰 능력의 날개를 펼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바로 주님이 거하십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샘솟는 생수를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신의

힘이 아니고 주님을 의뢰하고 기대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서 조금씩 또 조금씩 새롭고 풍성한 생수의 사랑을 공급해주실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하신다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사랑할 수 없을지라도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뢰한다면, 그것을 기도함으로 기대한다면, 그것은 가능한 일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사람은 살고 죽습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조그만 사랑이 조금씩 흘러나오게 될 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더욱더 크고 아름답고 풍성한 사랑이 점점 더 넓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서정호 목사-

사진=shutterstock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찬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

1427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45에 있습니다)

3			7	9			5		
2							3	7	
	6		2		4				
				1	9	7		4	
	3	4						5	
			4		5		2		
							2	1	8
	2	3		7					
4	9		1	6					